

내일채움공제 외부위탁운용 기관 모집

중진공, 25일 오전 10시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 공제사업 성과보상기금의 외부위탁운용(OCIO) 기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지난달 21일 증권사 및 운용사를 상대로 기금 설명회를 진행했다. OCIO 시장은 잠재력이 크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 금융투자 업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일채움공제사업 성과보상기금은 내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받는다. 접수기간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다. 접수 기관을 대상으로 기금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기술평가를 통해 10월말 우선협상대상자를 1곳을 선정한다.

기금운용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년간이며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에 의뢰해 진행한다. 다만 기존엔 증권사, 운용사 업권을 구분해 위탁하던 것을 이번에는 업권 구분 없이 선정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전승재 변호사의 IT 인사이트

가명정보 결합과 마이데이터

는 개인별 속성과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와 달리, 마이데이터 제도로써 취득한 정보는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을 비롯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셋째, 이종(異種)의 가명정보 데이터셋(data set)을 결합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가져가야 하고, 결합 결과물을 반출하려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반출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통신사에 축적된 소액결제 내역과 신용카드사에 축적된 카드승인 내역 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결합해 소비성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려면, 해당 통신사나 카드사 스스로 할 수 없고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며, 그나마도 특정 개인 식별이 불가능(산업적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물이 얻어질 뿐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제도로써 취합된 이종의 개인신용정보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 예컨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이용자는 통신사를 상대로 본인의 소액결제 내역을,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본인의 카드승인 내역을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전송된 두 데이터셋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결합해 빅데이터 분석 및 타겟 마케팅 용도로 쓸 수 있다.

물론 마이데이터 제도의 한계도 있다. 일단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신의 고객에 대해서만 활용(전송요구권 행사 권유)할 수 있고, 가명정보처럼 불특정 다수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에는 쓸 수 없다. 또한 모든 유형의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 법령·고시에 규정된 일부 유형의 개인신용정보만 전송요구 대상이 된다. 참고로 시행령에는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송요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에 ‘인터넷 쇼핑물 이용자의 물품구매 내역’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한창 쟁점이 되고 있다.

이처럼 마이데이터 제도가 강력해질 수 있었던 명분은 단순하다. 기존에서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 수집에 대해 ‘수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마이데이터의 경우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의 이동을 ‘능동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자가 근본적으로 다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련한 ‘금융기관에서 내 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를 때, 이용자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한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한다고 여길까. /법무법인 바른

‘발명특허대전’ 출품작 10일 접수 마감

발명진흥회, 대통령상 등 122점 시상



한국발명진흥회가 ‘2020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및 상표디자인권전’ 출품신청 접수를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KINPEX), 상표디자인권전(TDEX)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지식재산분야 전시회다.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은 국내 우수기술·특허제품을 발굴, 선정해 전시홍보를 통한 사업화 촉진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상표·디자인권전은 상표와 디자인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상과 함께 다양한 기획 전시를 진행한다.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및 상표·디자인권전 수상작에 대해서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총 122점의 시상이 이뤄진다.

전시회는 수상작 전시관, IP-안심케어존, IP-BIZ존, 국민안전발명챌린지관, 직무발명홍보관, 상표·디자인 핫이슈관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준수한다. 언택트 기반으로 온라인 전시회도 병행 개최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잠재 수요고객 대상으로 물리적, 시간적 제약 없이 언제나 방문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데이터 3법의 시행일은 지난 8월 5일인데,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이하 ‘마이데이터’)를 신설한 신용정보법 규정은 좀 더 늦은 내년 2월 4일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행위규칙에 관한 일부 조항은 내년 8월 4일에 각각 따로 시행된다. 그만큼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제도라는 뜻이다.

마이데이터의 강력함은 가명처리 제도와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첫째, 가명처리의 기본 전제조건은, 개인 식별자를 가명으로 대체하는 등 처리를 한 후 원래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간 연결정보(matching table)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비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제도하에서는 개인신용정보 원문 그대로를 전송요구할 수 있으니 가명처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제약이 없다.

둘째,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금지된다. 즉, 1대 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특정 조건의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가명처리 제도를 쓸 수는 없다. 가명정보

서경배 “새로운 시대 해답은 고객이 줄 것”

(아모레퍼시픽 회장)

아모레퍼시픽그룹 ‘창립 75주년’ 비대면 행사서 고객중심 경영의지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창립 75주년을 맞아 디지털·비대면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국내외 임직원, 장기근속 수상자 등이 사무실과 자택에서 온라인 중계 채널과 화상회의 채널에 접속해 응원과 댓글로 창립 75주년의 뜻깊은 소회를 나눴다.

이날 행사에 앞서 서경배 회장은 75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아모레퍼시픽 아카이브(본사 2층) 공간에서 창립 기념 메시지를 사전 촬영해 영상으로 전달했다.

서경배 회장은 영상에서 “75년의 오랜 역사는 창업 선배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손수 일궈온 자랑스러운 결실”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은 수많은 어려움과 국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만의 뷰티 문화를 결국 세계인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낸 뷰티 전문 기업”이라고 밝혔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창립 기념 메시지

했다.

이어서 “오랜 시간, 깊은 신뢰를 쌓아온 우리에게 팬데믹도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고객의 열망을 조사하고 삶을 이해하며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고객 관리를 이어갈 때 새로운 시대의 해답은 고객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고객 중심’ 경영 의지를 다졌다.

또 장기근속 수상자 대표를 직접 찾아가 선물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인

터뷰 영상을 통해 근속 10주년, 20주년, 30주년을 맞이한 국내의 수상자 모두에게 직접 선물을 전달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했다.

1945년 9월 5일 창립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뷰티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국내 최초의 화장품 연구소 설립, 화장품 수출, 한방 화장품 출시 등을 통해 국내 뷰티 시장의 발전을 앞장서 이끌어왔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BGF리테일, ‘태풍 피해’ 강원 양양에 응급구호세트 지원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양양에 응급구호세트를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태풍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BGF로지스 강릉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던 응급구호세트를 양양군청으로 긴급 수송했다. 응급구호세트에는 모포, 베개, 수건, 속옷, 세면도구 등 집을 떠나 있는 이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생활필수품들이 들어있다. /BGF리테일



CJ올리브영, 보호종료아동 지원 사업 본격화 CJ올리브영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를 최초로 운영하며 국내 보호종료아동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CJ올리브영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국내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한 ‘올리브영 소년교육 서포터즈’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출범한 ‘올리브영 소년교육 서포터즈’ 1기는 심사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 16명과 보호종료아동 4명으로 구성됐다. 대학생 4명과 보호종료아동 1명이 한 팀이 되어 오는 12월까지 보호종료아동 인식 개선을 위한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올리브영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국장급 전보 △ 산업기술융합정책과 장영진 △ 코트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김상모

◆이데일리 △ 노선위원실장 양승득

◆농림축산식품부 ◇ 과장급 전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강민철 △ 식품산업진흥과장 임영조 △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 이용직 ◇ 직제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 공익

직불정책과장 정혜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김병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과장 김재민 △ 공익직불정책과 김동환 △ 공익직불정책과 지수아 △ 공익직불정책과 정미영 △ 공익직불정책과 정훈기 △ 공익직불정책과 김형욱 △ 공익직불정책과 이상인

부음

▲명노봉씨 별세. 명희재·명선재(현대자동차

차 품질본부 차장)씨 부친상, 안태석(KB증권 어드바이저리 부장)씨 장인상, 나하나씨 시부상 = 6일 새벽, 충북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장지 충청남도 청양군 선영. 043-269-7213

▲고재욱씨 별세. 고현덕(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씨 부친상 = 5일 오후 9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의료원장례식장 202호, 발인 7일 오전 5시 30분 02-958-9548